

‘대체농지 지정제 폐지’ 농민 반발

농림부 “지역개발 숨통 터주기 위한 것”

농업계선 “농지 감소·난개발 심화 우려”

정부가 지난 5일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자는 7일 “대체농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는 장관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역별로 농업진흥지역을 대체할 토지가 부족한 데다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농업계는 “국제 곡물값이

폭등하고 식량수급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우량농지 확보는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영석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에그플레이션(Agflation·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시대에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가 농지규제 완화를 한다는 것은 농업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정성서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

합회 정책부회장은 “정부가 지자체는 농지거래를 자유화해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존 농공단지도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부실한 상황에 이런 지침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농지거래 완화지침은 결국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농업인 김중현(화순)씨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농지규제를 완화한다면 농지의 급속한 잠식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제도가 폐지된다면 농지의 난개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2007년 경지면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경지면적은 178만2천ha(논 107만ha, 밭 71만2천ha)로 2006년의 180만1천ha보다 1만9천ha 줄었다.

10년 전인 1997년의 192만4천ha보다 8%나 감소했다.

전남도의 경지면적은 31만6천ha로, 이중 경지면적은 75.1%인 23만7천ha에 달한다.

이와 관련, 하인구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장은 “대체농지 제도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해제요건 등 각종 규제장치는 그대로 남아 있어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가 무차별적으로 전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제=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옛 절대농지)를 공단건설 용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같은 면적의 농지를 확보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토록 의무화한 것으로, 그동안 우량농지 확보에 기여해왔다.



“판매 목표 2조6천억”

전남도와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3일 광주원에농협 화훼공판장 대강당에서 ‘전남 농축산물 마케팅세일즈단’ 출범식을 갖고, 올해 2조6천억원 규모의 농축산물을 판매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전남도와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3일 광주원에농협 화훼공판장 대강당에서 ‘전남 농축산물 마케팅세일즈단’ 출범식을 갖고, 올해 2조6천억원 규모의 농축산물을 판매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1월 지역 유통매장 매출 15% ↑

‘설특수’의 영향 등으로 지난 1월 광주·전남지역 대형 유통매장의 매출이 1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내놓은 ‘대형소매점 판매액 동향’에 따르면 1월중 광주·전남의 대형소매점 판

매액은 1천9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4.9% 늘어난 것으로, 2월 초 설 연휴에 앞선 ‘특수’로 인해 지역 내 소비가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형판매점으로, 백화점과 마트

등으로 구분된다. 광주의 경우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천353억2천만원으로, 1년 전보다 11.7% 늘었다. 매장별로는 백화점과 마트의 판매액이 각각 11.6%, 11.5% 증가했다.

특히 전남은 1월 대형소매점의 판매액이 600억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1월보다 22.9%나 늘었다. 이는 설날과 지난해 4월 휴예비 순전점 재오픈 등의 영향으로 지역 마트의 매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기아차 납품단가 20% 인상

원자재값 급등 따른 협력업체 어려움 덜어 주기로

현대·기아차가 원자재값 상승과 관련, 협력업체의 납품가격을 평균 20% 인상을키로 결정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13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을 만나 “작년에 두차례 납품가격을 올린데 이어 올해도 원자재값 상승분을 감안해 1차 협력업체의 그 가격을 평균 20%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 현대·기아차는 이같은 인상분을 지난 2월1일부터 공급된 물량에 소급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대·기

아차는 1차 협력업체의 납품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인 2, 3차 협력업체에 그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2, 3차 업체의 납품가격 인상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2, 3차 협력업체들이 최근 원자재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의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가격인상이 2,3차 협력업체에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판매가를 더 높일 수 없는 만큼 원가절감 노력을 배가, 원자재값 상승분을 흡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김동진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대·기아차가 중소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애정을 쏟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위해 현대차가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700명 공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상반기에 경력사원 200여명, 대졸 신입사원 500여명을 뽑기로 하고 14일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경력사원은 해외 MBA 출신을 포함해 기획·재무 등에서 모집하며 14일부터 24일까지 그룹 홈페이지(www.kumhoasiana.com)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21일부터 채용에 들어가는 대졸 신입사원도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고 서류전형, 인성성검사, 면접과 한자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농수산물 수출 지원 신청·접수

농수산물유통공사 오는 21일까지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권용주)는 오는 21일까지 전남도내 농수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08 농수산물 수출업체 해외지사화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 업체는 농수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 수출업체 및 생산자 단체이며, 해외지사 설립 지원 분야는 업체의 계획에 따라 1년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업체나 생산자단체는 aT홈페이지(http://www.at.or.kr)나 aT 광주전남지사(수출유통팀 062-944-4747)로 문의하면 된다.

권용주 지사장은 “aT는 지난해 69개 농수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해 465만2천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새 얼굴

“수출기업 지원 현장 마케팅 주력”

김 병 술 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



“광산업·금형산업 등 광주시 특화사업과 전남도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출지원을 위해 현장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13일 취임한 김병술(50)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은 “10여년 동안의 무역컨설턴트, 전남도 통상협력 등의 경험을 살려 수출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또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 전시지원 등 기존 사업을 체계화하는 한편 특히 일본

내 식품부문의 ‘명인(名人)’과 광주·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출물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도 출신인 김 지부장은 광주고, 연세대를 거쳐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부인 유근숙씨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住公 ‘보금자리론’

올 167억 판매

올들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1~2월중 광주·전남의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은 1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7억원)에 비해 32% 늘어난 것으로, 광주에 서만 두 달간 130억원(282건)이 공급됐다. 이처럼 ‘보금자리론’의 공급실적이 증가한 것은 올 들어 이사할 수요 증가와 장기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선호도 개선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1588-8426 / 062-722-0100

10255300-9348